

위령의날 셋째미사 [11월 2일]

시편 23(22), 1-3. 4. 5. 6

(후렴)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으라.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-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-

2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 도 - 당신 함께 계시오니
두려울 것 없나이 다. -

3. 원수들 보는 앞에 서 - 제게 상을 차려 주시 고 -

4. 제 한 평생 모든 날 에 -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니 -

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고 -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
바른 길로 이끌어 주 시 - 네.

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- 저에게 위안이 되나 이 - 다.

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 니 -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 옴 니 다.

저는 오래 오 래 - 주님 집에 사오 리 - 다.